IBKS Spot Comment

제약/바이오

정이수, CFA

02) 6915-5677

[제약/바이오]
CDMO 랠리, 다시 시작될까

What's New:

12월 10일(미국 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찬성 312, 반대 112로 통과했다. 이번 NDAA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이른바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논의가 다시 가시권에 진입했다. NDAA는 매년 통과되어 온 필수 입법으로, 향후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입법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alysis:

이번 법안은 2024년 추진됐던 기존 생물보안법과 달리, 중국 기업 WuXi AppTec과 WuXi Biologics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정 기업의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번 NDAA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특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행정관리예산국(OMB)이 1년 이내에 공식적인 '우려 기업' 명단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특정 중국 기업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법안 시행 이후 우려 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중국 CDMO 기업과 계약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은 즉각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단계적 공급망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CDMO 기업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낮추려는 정책 시그널이 명확한 만큼, 글로벌 제약사들은 선제적으로 중국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So What?:

연내 국방수권법안 통과 가시성이 높아진 가운데, 해당 조항은 중국 CDMO 중심의 기존 바이오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CDMO 기업들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4.73%), 에스티팜(+3.77%), 바이넥스(+3.11%) 등 국내 주요 CDMO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 국면에서 나타났던 국내 CDMO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올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에 재차 주목할 시점이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